

광주시 일경험드림, 경력직 선호 트렌드 읽었다

광주시가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추진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최근 채용시장 흐름에 맞춰 청년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실질적인 경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변화하는 고용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의 모범사례이자 광주시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청년들의 자립과 정착을 돕기 위해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과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혁신적인 일자리·주거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이 정책들은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높은 주거비 부담 속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청년 직무역량 키우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2017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지역 사업장에서 최대 5개월간 실무경험을 쌓고 직무역량을 강화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총 7700여명의 지역 청년들이 참여해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채용 연계와 온보딩 교육, 현직자 멘토링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청년과 사업장 수요에 따라 ▲집중참여형(주 40시간, 3개월) ▲자기주도형(주 25시간, 5개월)으로 일경험 모델을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참여 청년의 만족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

일경험 이후 채용으로 이어질 경우 해

기업·공공기관에서 경험 쌓아... 지역청년 7700여명 참여 큰 호응
집중참여·자기주도형 일경험 모델 도입... 채용기업엔 장려금 지급
직무역량 강화부터 주거이자 부담 완화까지... 청년자립환경 조성



당 기업에 연 최대 24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돼 고용 지속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은둔형 외톨이, 자립준비청년, 장기구직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가점 부여 제도를 통해 포용적 청년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 주거비 걱정 덜어주는 '이자지원 사업'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연 최대 200만원, 최대 4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고 광주은행이 최대 1억원까지 연 2.5%의 금리로 대출을 실행한다.

올해부터는 신규 임차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4년 지원 기한 이후에도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을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39

세 청년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 혹은 부모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며, 대출이율 중 2%는 광주시에서 지원하고 0.5%는 자부담이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청년들이 실제 직무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진로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와 주거 분야에서 지속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광주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영길 기자



광양경제자청, 인도네시아와 투자협력 교류회 인도네시아 바탕 경제특별구역과 상호 투자확대 방안 토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제자청)이 7월 21일 전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바탕 특별경제구역, 광양만권 기업인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양경제자청이 지난 6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투자전략산업부 차관 면담, 바탕 특별경제구역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이번 교류회가 마련되었다.

주한 인도네시아 알리 안디카 와르다니(Ali Andika Wardhana) 대사대리는 "인도네시아와 한국간 투자와 교역이 활발해 지고 있는 시기에, 광양만권과 바탕 특별경제구역간 투자와 산업협력을 위한 교류회 개최는 전략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교류회를 통하여, 두 지역간 더욱 체계적인 협력 토대가 마련되고, 공공부문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상

방간 기업투자가 촉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구충곤 광양경제자청장은 환영사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천연자원 가공소재를 우리지역으로 가져와 한국의 기술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한·중·일 시장에 판매한다면 원료 확보와 시장개척 측면에서 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광양만권과 인도네시아간 투자협력 교류회를 계기로 제조산업, 금속가공, 기능성 화학, 에너지 분야 등에서 우리지역과 인도네시아 기업간 상호 투자와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현황 설명에 이어 교류회에 참석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ESS산업진흥회 회원사는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와 시장개척을 위한 1대1 수출상담 교류회에 참여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보해양조, 업계 첫 대용량 소주 '일새주 파티팩' 출시

보해양조는 21일 소주업계 처음으로 50, 100 대용량 소주 '일새주 파티팩'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로 선보이는 제품은 내부에 특수팩을 넣고 종이 상자로 감싼 구조이며 내용물이 공기와 닿지 않아 신선하게 유지된다.

50L 제품은 기존 360ml 소주의 13.9병 분량이며 무게는 45% 가볍고, 부피는 48% 작다. 반면 가격은 16% 저렴해 경제적이다.

'일새주 파티팩'은 원하는 만큼 편하게 마실 수 있고 가벼운 무게와 효율적인 부피, 폐기 부담이 적은 패키지까지 기존 소주 음용의 불편을 대폭 개선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 제품은 '혼술', 모임, 캠핑, 대규모 행사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품의 상자 윗부분을 열고 내부 주입구를 꺼낸 뒤 손잡이 밸브를 연결해 정수



기처럼 원하는 만큼 따라 마시는 방식이다.

일새주 파티팩은 알코올 도수 16도이며 전국 주요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일새주 파티팩"은 획일적인 제품 형태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편의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변화하는 음주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등 소주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전라남도도는 코트라(KOTRA) 광주전남지원단과 함께 싱가포르에서 'K-푸드 수출상담회 및 판촉행사'를 열어 9천860만 달러의 수출 상담과 8만 달러의 수출협약(MOU) 성과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8일까지 3일간 싱가포르 서부 주류 포인트(Jurong Point) 쇼룸에서 진행됐다.

호텔 회의실 중심의 기존 기업 간 거래(B2B) 상담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소비자와 바이어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간 거래와 소비자 대상 판촉(B2C)을 연계한 체험형 행사로 운영됐다.

행사에는 ▲(주)새벽팍(김치) ▲바다손애(주)(김부각) ▲완도물산(김) ▲(유)해성

전남도, 싱가포르서 케이푸드 8만 달러 수출협약

10개 식품기업 참여 9천860만 달러 수출상담회·판촉 활동

쇼핑몰서 B2B·B2C 체험형 행사... 김치·숙떡 등 시식도 인기

인터내셔널(광어죽) ▲정남진장흥표고(비건햄) ▲(주)에다손(떡) ▲(주)제이에스코리아(전복 통조림) ▲(주)푸른정식품(후리카케) ▲해미원(전복) ▲(유)김시월(김) 등 전남 대표 식품기업 10곳이 참여했다.

전남도도는 수출상담회와 함께 직거래 장터와 시식행사를 열어 현지 소비자들에게 전남 식품을 직접 소개했다. 특히 김치, 떡류 등 전통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주)새벽팍의 배추 맛 김치와 (주)에다손의 숙떡은 시식 샘플이 동나는 등 현지 소비자 반응이 뜨거웠다.

싱가포르는 식품청(SFA) 규정상 허가 받은 시설에서 조리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고 개봉 제품 시식은 제한되지만, 코트라 싱가포르 무역관의 협조로 날개 포장 제품을 활용한 시식·홍보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다. /임재일 기자

신원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소비자가 직접 맛보는 방식이 구매로 이어지는 만큼, 현지 쇼핑몰에서 바이어 상담과 소비자 체험이 함께 이뤄지는 모델은 수출 확대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쇼핑과 식문화가 결합된 도시형 국가로, K-푸드를 소개하기에 최적지"라며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동남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도는 이번 행사를 K-푸드 수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현지 소비자 점점 확대와 실질적 수출 성과를 동시에 달성한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임재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